



2020년 6월 1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은 6.10(수) 14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6. 10(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내용별 세부 담당자는 붙임 참조

‘위기를 기회로!’,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해 민간·지자체·중앙정부 머리를 맞대다

– 지역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7대 핵심 대책을 통해
당면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강화 –

- ❶ 2,000억 규모 특별 보증 신설 등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강화
- ❷ K-방역, K-홀코노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 마케팅 보강
- ❸ 전문 온라인 전시관, 전자상거래 등 언택트(Untact) 수출 지원 고도화
- ❹ ‘범정부 드림팀’ 중심으로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 ❺ 정부·지자체·수출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기업 물류부담 경감 지원
- ❻ 지역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환경·공공수요 등 패키지 지원
- ❼ 지역고용·지역산업 침체 사전 예방 및 지역 전시 인프라 대폭 보강

- 정부는 6월 10일(수)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함

※ 별도 서면보고 :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 제고방안」

* [참석] (대면)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수출 지원기관장
(화상)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상의회장 등 총 71명

- 우리 수출은 지난 2월 플러스로 전환(+3.6%)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4~5월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하반기에도 단기 수출회복이 녹록지 않을 전망*임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반기→하반기, 한은) :

(세계) △4.4 → △2.4 (美) △6.7 → △6.6 (日) △5.5 → △5.0 (韓) △0.5 → 0.1

- 정부는 지난 2월20일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수출위기에 대응하여 왔으며,

* 「코로나-19 개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무역금융 260.3조(+28.1조), 통관·물류 등 애로 해소

「수출활력 제고 방안」(4.8, 제4차 비경) : 유동성 36조+α, 화상상담 등 언택트 수출 지원

-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확산, 미·중 분쟁 격화 등 수출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응하여 금번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음

- 금번 대책은 지역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면한 수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17개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126건)과 수출기업 설문조사(722개사, 무역협회)를 바탕으로 지역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과제 발굴

< 지역·현장 기반 수출활력 제고 기본방향 >

구 분	기 존	보 강
주 체	중앙정부 주도	지자체 참여
방 식	하향식 정책 수립	상향식 애로 해소
대 응	일률적 지원	맞춤형 대응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정보화, 벤처 기업 육성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으며, 코로나 위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세계 일등 상품을 수출하는 강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가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과제임”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K-방역에 이어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대책 주요내용

[1]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지원 강화

- 정부는 수출 수요 회복 시까지 단기 자금애로를 집중 해소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 기업·취약산업을 중심으로 편셋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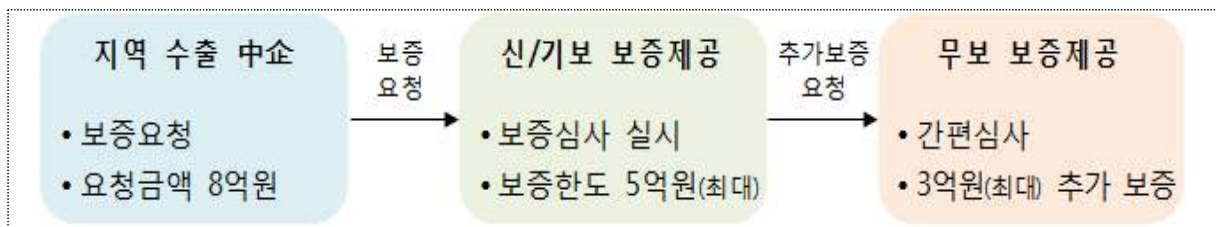
① 정책금융기관 공동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일시적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대상 2,000억 규모 특별지원 신설

(무보 1,000억원, 신·기보 각 500억원 → 수요·운영결과 등을 고려 확대 검토)

** 신·기보에서 심사 후 신청금액 일부를 보증하면 무보가 간편 심사* 후 추가 보증 (기업당 최대 8억원 : 신·기보 5억 + 무보 3억)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 >



② 하반기 중 무역금융 총 134조원 신속 공급

* 3차 추경 국회 통과시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총 7,171억원 (무보 출연 3,271억원, 수은 출자 3,900억원)을 신속 투입

** 추경, 기금변경, 무역진흥자금 지원 등을 활용, 수출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 지원 확대 [무역진흥자금 긴급경영안정 추가 : ('20년) 730억원 → 930억원(+200억원) 등]

③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특별 보증 신속 가동 등 산업별 지원

* (자동차) 완성차·정부·지자체 출연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업계를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조기 가동 (6.11일 협약 체결)

(조선) 제작금융 지속·추가지원, 인도지연 등 발생 시 제작금융 만기 연장 등

[2]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3대 마케팅 보강

- 정부는 ①온·오프라인 마케팅, ②국가 브랜드 연계, ③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으로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 수출을 지원할 계획임

① 대대적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3대 유망품목 시장 조기 확보

- * (K-방역) K-방역물품을 세계일류상품 등으로 조기 선정, '코로나 진단장비 온라인 전시관' 등 비대면 마케팅 집중 개최(6~7월), 하반기 이후 「K-방역 해외 특별전(가칭)」 개최
- ** (K-홈코노미) 지역 수요 맞춤형 신선식품 수출 지원, 국내 대형 소비행사(코세페 등)와 연계, 소비재 온라인 수출대전(6~9월) 및 해외 9개 소비대전(9월~) 순차 개최
- *** (K-디지털)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확충, 콘텐츠 통번역 및 컨설팅 등 지원(30개社)

②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 연계 수출

- * 병원 진출 위주 기존 보건 분야 ODA를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
- ** 현지 의료법·금융 등 해외진출 컨설팅,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20.하) 등 활용

③ 표준·지재권·조달 등 패키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 * (표준) 코로나-19 진단기업, 자동차·도보 이동형(Drive-Walk Thru) 진료소 등 K-방역 국제표준 선정 (지재권)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 해외 지재권 확보, 'K-워크스루' 브랜드화 (통관) 방역관련 제품 동일제품 검사생략, 현지 물류서비스 우선 지원('20.하, 600개社 추가지원) (조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공공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수의계약 허용 추진

[3] 언택트 수출 지원 고도화

□ 정부는 오프라인 방식을 보완하는 1단계 지원을 넘어, 수출 지원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질적·양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회 개최

- *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바이코리아 등)를 세계 최고 수준 온라인 전시관으로 육성 (섬유·패션, ICT, 세계일류상품 등 분야별 특화 온라인 전시관 신설 및 순차 확대)
- ** AR·VR 등을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특성화 콘텐츠 제작 지원(1,750개社)
- *** 인플루언서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위한 K-실감 스튜디오, 해외 K-Studio 확대

②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 고도화

- * 국내·외 화상상담 수출 지원 인프라 획기적 확충 (90개 → 1,600여개)
- ** 코트라 지원방식의 전면 온라인화, 「수출활력촉진단 2020」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재가동
- *** 마케팅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유망기업 중심으로 긴급 수출 바우처 확대(1,100개社)

③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용 언택트 수출 활성화

- * 수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개통(9월)
(수출신고 없이 배송정보를 수출신고서로 자동·일괄 변환하는 전용 플랫폼 도입)
- ** 환적물품만 가능하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국내물품 반입 허용(6월)

[4]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 정부는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 예상되는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활용하여 수출확대 및 경제활력 회복을 촉진할 계획임

① '범정부 드림팀'을 구성하여 전략 분야 집중 공략

* 정부·지원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하여, 기존 SOC 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친환경 등 유망 분야 진출 지원

② 친환경*(수소경제), 제조설비**(스마트공장·ICT) 등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맞춤형 마케팅 지원 강화

* Future Car with Korean Innovation Webinar(獨, 하반기), GP 유럽 2020 등

** 한·중동 신산업 파트너십 플라자(하반기), 한·중 스마트팩토리 플라자 Pre-Week (11월) ICT Innovation Plaza(선전, 9월) 등 32개 사업 지원 (422개社, 싱가포르·중국·UAE 등)

[5]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 정부는 항공·해운 등 긴급 화물운송 지원, 물류부담 경감과 함께, 출입국 신속통로 확산으로 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지원할 계획임

①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의 기내 수송허용 등 비상수송능력 확충

* (항공)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닌 경우, 객실 내 천장 수화물칸(오버헤드빈)과 승객 좌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용
(해운) 주요 항만(부산·인천·광양·울산항)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 개방 등

② 범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물류부담 경감

* (물류비) 정부·지자체·수출 지원기관 합동으로 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 지원
(통관) 화물검사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관검사 비용 지원 (7월~, 71억원)
(정보) '수출입 물류 포털' 전면 개편, 물류정보 통합 제공 (무역협회, 9월)

③ '韓·中 신속통로' 모델 중심으로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

* (출국) 한·중 신속통로 모델을 중국 내 쑤 지역과 타국가로 확대 추진
(입국)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단기체류(1주일 내)하는 기업인은 '귀국시 격리면제' 적용

[6] 핵심으로 해소 및 생산기반 보호

□ 정부는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수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부담 경감·물류규제 완화·공공수요 활용을 지원할 계획임

①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 등 추진

* 특별연장근로 보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추진, 지역투자보조촉진금 지원기업 대상 고용의무 탄력적용 등 지역 수요 기반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 패키지' 지원

② 화학안전 현장 이행력 제고 지원

* 유해 화학물질 취급용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시설검사 추진
[(현행)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설 가동(평균 6.4일 소요)]

**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관리 컨설팅,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 제공 등 우선 지원 추진 ('20. 529억, 3차 추경 : +116억)

③ 대대적 보세공장 규제 완화 및 신선식품 물류 인프라 확충

- ▶ (조 선) 해양플랜트 건조용 원재료, 선박 내 유류 등 보세공장 반입 허용 등
- ▶ (바이오) 배양액 등 원재료 불량 여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을 보세공장의 작업 인정
- ▶ (중공업) 철도차량 등 거대중량 제품도 보세공장 외 일시장치 허용
- ▶ (에너지) LNG 터미널 부지 사용승인, 보세구역 특허, 천연가스 반출입업 신고 지원
- ▶ (수산물) 부산 등 주요 항만에 위생 시설을 갖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신설('20.하)

④ 군복 등 공공 수요를 통한 지역 원사·원단기업 활로 확보

* 군 피복류에 국산소재(원사·원단) 사용을 활성화하여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보호

[7] 수출 인프라 보강

□ 정부는 수출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고용·산업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전시 인프라를 대폭 보강할 계획임

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대책 추진

* 지역별 수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수출 부진지역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수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수요를 받아 업종별 수출상황 등 모니터링

** 정부-지자체 매칭을 통해, 무역금융·수출 마케팅·컨설팅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 실효성 제고

***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시, 지역별 수출 데이터를 선제적·정량적 지표로 연계·활용

②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시산업 정상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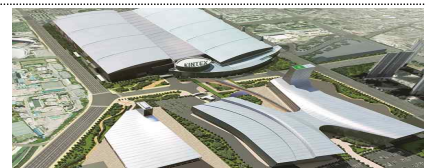
- * 전시회 취소·연기로 인한 전시업계 피해 완화 및 애로해소 지원, 전시시설 사업자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지방의회별 의결로 한시적 감면 추진
- ** 방역관리·입국 지원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한 패키지 지원
- *** 전시산업 안정화를 위한 통계·표준단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③ 취약한 전시 인프라 2배 확충

- * 전국 11개 전시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3.6조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전시 면적을 약 2배 확충 ('19. 29.3만 → '26. 56.1만m²)
- ** 초대형 수도권 전시시설의 경우 입지·전시 분야 등을 고려해 차별화

◇ 킨텍스 제3전시장 ('21 ~ '23년, 4,891억원)

- 공항·항만 이용 용이 → '외곽형 전시장'으로 대형 산업재 중심의 세계적 전시장으로 육성



◇ 잠실 제2코엑스 ('22 ~ '26년, 22,280억원)

- 도심 접근성 용이 → 소비재 전시, 컨퍼런스·스포츠·문화 이벤트 등 '도심형 복합공간'으로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5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축소($\Delta 25.1\% \rightarrow \Delta 23.7\%$)되고, 무역수지도 1달 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등 반전의 기회가 엿보이는 상황”으로,
- “미중유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지역과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와 722개 수출기업의 의견에 기반해 상향식·맞춤형으로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면서,
 -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신 K-방역 성과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각되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붙임 : ① 제2차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② 부처별 세부 담당자 / ③ 지방자치단체별 담당자

별첨 :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김태형 서기관(☎044-203-4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 6. 10(수), 14:00~16:00 (120분)
- **장 소** :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17개 시도 영상 연결(지자체장·지방상의회장)
- **참 석** : 국무총리(주재), 각 부처,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등 71명
- 지자체·지방상의(33) : 서울·부산 등 시·도 단체장·지역상의 회장
 - 민간·기관(16) : 경제5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 부 처(18) : 산업·기재·과기정통·외교·국토·해수부 등
 - 총 리 실 (4) : 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총리비서실장, 경제조정실장
- **세부계획** * 진행 :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 대구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발언까지 공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14:02('02)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2~14:07('05)	인사말씀	국무총리
14:07~14:13('06)	참석자 대표 말씀	무협회장, 대구시장
14:13~14:23('10)	【 대책 보고 : 산업부 】 :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	산업부 (산업부 장관 말씀 후 무역투자실장 발표)
14:23~15:55('92)	【 토론 】 : 지자체장 → 경제5단체 → 부처답변 順	참석자
15:55~16:00('05)	마무리 말씀	국무총리

붙임 2

부처별 세부 담당자

기 관	부 서	담당자	연락처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윤현주 과 장	044-200-2211
		조성래 사무관	044-200-2212
		홍지은 사무관	044-200-2222
		김서웅 전문위원	044-200-2220
		전신영 사무관	044-200-2217
산업부	무역정책과	이귀현 과 장	044-203-4020
		김태형 서기관	044-203-4021
		최윤석 서기관	044-203-4025
		이주노 사무관	044-203-4022
		허정민 사무관	044-203-4023
	무역진흥과 (전시산업)	윤한성 사무관	044-203-4034
기재부	산업경제과	권은영 사무관	044-215-453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박현진 사무관	044-202-6221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전소원 사무관	02-2100-7807
		엄승표 사무관	02-2100-7806
국방부	물자관리과	박상희 사무관	02-748-5727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이동훈 사무관	044-205-3904
문체부	기획혁신담당관실	김유미 서기관	044-203-2212
		김민정 주무관	044-203-2213
	문화산업정책과	신지원 서기관	044-203-2422
	융합관광산업과	강권수 사무관	044-203-2897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노승호 사무관	044-201-2172
보건부	해외의료사업과	김재균 주무관	044-202-2894
	중수본	박광돈 주무관	044-202-3632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김승주 사무관	044-201-6881
고용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노경민 서기관	044-202-7027
		이재화 주무관	044-202-7040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이진우 서기관	044-201-3517
		정재엽 주무관	044-201-3523
	기획담당관실	김원섭 주무관	044-201-3204
	물류정책과	곽병철 사무관	044-201-3998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	배준오 사무관	044-200-5481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서종필 서기관	042-481-4384
법무부	체류관리과	송지훈 주무관	02-2110-4058
금융위	산업금융과	김명지 사무관	02-2100-2865
식약처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용기 서기관	043-719-1406
		이수연 주무관	043-719-1414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한진 서기관	042-481-781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윤기웅 서기관	042-481-5429
		안광열 사무관	042-481-5154

지자체	부 서	담당자	연락처
서 울	경제정책과	김미영 주무관	02-2133-5213
부 산	투자통상과	김정애 주무관	051-888-4812
대 구	국제통상과	김귀숙 주무관	053-803-3293
인 천	산업진흥과	박기무 주무관	032-440-4282
광 주	기업육성과	박은화 주무관	062-613-3882
대 전	기업창업지원과	이미경 주무관	042-270-3701
울 산	투자교류과	김가인 주무관	052-229-2741
세 종	기업지원과	김지현 주무관	044-300-4143
경 기	외교통상과	정은주 주무관	031-8008-4661
강 원	중국통상과	김진호 주무관	033-249-3049
충 북	국제통상과	이혜란 팀 장	043-220-3481
충 남	국제통상과	강시내 주무관	041-635-3362
전 북	기업지원과	모진수 주무관	063-280-3225
전 남	국제협력관	심명섭 주무관	061-286-2452
경 북	외교통상과	강효순 주무관	054-880-2734
경 남	투자통상과	이영민 주무관	055-211-3294
제 주	통상물류과	조연주 주무관	064-710-2626